

# ‘무효표 논란’ 늪에 빠진 與, 경선 후유증

### 이낙연측 “결선없이 원팀없다” 지도부 압박 宋 “이재명 후보 확정, 이의제기 수용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촉발된 ‘무효표 논란’에 심각한 경선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결선투표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송영길 대표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용은 확산일로로 끌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순위 높은 공방전도 재점화하며 ‘포스트 경선’ 원팀 전열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내 일각에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겪은 ‘후단협 악몽’이 재현하는 것이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 사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종료 사흘째인 12일에도 당 지도부에 무효표 처리 취소와 함께 결선투표를 실시하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캠프의 좌장인 설훈 의원은 다시 총대를 댔다.

설 의원은 라디오에서 출연, 무효표 처리 논란을 두고 “그냥 고(GO)하게 되면 원팀에 결정적 하자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당이 분열되는 원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송 대표가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며 송 대표에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던 설 의원은 더 나아가 “그런 상황(구속될 상황)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대장동과 관련된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들이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전날만 해도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던 이 후보 측은 발간하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이 후보의 수행 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설 의원을 겨냥, “냄새를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제 지금 도대체 몇 번째냐”며 “솔모없는 정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을 향한 ‘경선 승복’ 압박 발언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후보 측근인 김병욱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참여는 당초 패배 시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무효표 적용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제정할 당시 대세론을 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지도부가 빨리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도 ‘무효표 처리’ 반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송 대표는 TBS 라디오에 나와 “(특별당규 규정) 법률가들과 제가 검토해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도부 내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 강병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측이 당 선관위에 이의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경선 불복이라고 보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모욕”이라며 “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저주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 “정권재창출 교두보 놓는 국감에 최선”

### 국감 인물

####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예결위)의 활약이 눈부시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현안해결’, ‘국가균형발전’, ‘불공정의 정상화’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실천과제를 내세웠다.

그는 우선 지역현안과 관련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호남권 항행안전시설 교체 뒷진’, ‘SRT호남선 열차지연 오명’ 등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과적 화물차 단속회피 ▲하이패스 ▲악용 ▲지역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물류창고 안전 사각지대 ▲골든타임 외면 건설노동자



죽음 ▲임대아파트 복리시설 화재안전 ▲캠핑카 튜닝열풍 안전사고 ▲‘적신표’ 등 현장성 있는 문제제기로 박수를 받았다.

불공정의 정상화는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한 해 2조5천 946억원 ▲LH 구시대적 건축방식 ‘벽식구조’ 고집 ▲강간소음 10년새 4.8배 급증 ▲자동차 매매 역풍사원증 ▲하이패스 무단통과 미납액 518억 ▲천연기념물 수탈의 무덤 고속도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질의로 관심을 받았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예타사업 분석을 통한 양극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둘러막기’ ▲수도권 등 도심내 신규 주택공급 등 균형발전 전문기다나면 면모를 보였다.

조오섭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도 최선을 잃지 않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정감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정책국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이재명 “경기도 국감 수감”...대장동 일부 일탈 사과

###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의지 “사퇴 시기 국감 이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감상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다.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속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축하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즐기는 빠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

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의 심이 상당할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관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고도했다. /연합뉴스

##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

### 서삼석 “전담부서 운영, 조사방법 개선해야”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 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따르면 산림청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담조직 없이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산



정하기 위해서는 산림 탄소의 배출 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 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

심상정(62) 정의당 의원이 12일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심 의원은 진보정의당의 간판으로서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당 대선 후보 선출 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를 열어 심 의원이 이정미 전 대표와의 결선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1만1천993표 중 6



천44표(51.12%)로 과반을 얻어 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5천780표(48.88%)로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격차는 264표였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색소  
무향료  
무설탕